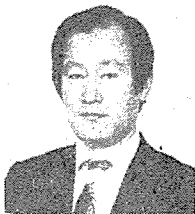


健康管理

특 집

이런 때 심장검사를 받자



李迎雨

심장병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질병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심장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자각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증상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심장병의 발견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더우기 연령에 따라서 심장병의 양상이 달라서 예를들면, 어린아이시절에는 대부분이 선천성심장병이 문제가 되나 성인에 있어서는 20~30대에 있어서는 류마티스성심장질환이나 선천성심장질환이 많으며, 40대이상에 있어서는 고

이렇게 하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호에는 「우리 몸의 건강관리는 이렇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어 걸고 여러가지 질병의 자가 발견과 관리를 엮어 보았다.

또한 건강할 때 자기 몸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집단 검진은 어떻게 유의한 가를 알아 보았다.

혈압성심장질환이나 허혈성심장질환이 많아서 연령에 따른 발생빈도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른 차이도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류마치스성심장질환이 많았으나 현재는 그 발생환자수가 격감하였으며 허혈성심장질환이나 고혈압성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더 높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심장병의 특징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고 양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심장병의 진단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검사법을 언제 시행하여야만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는냐가 문제가 되겠다. 물론

심장병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안면의 상태만 보아도 진단이 붙는 수가 있다. 예를들면, 양쪽 볼에 홍조를 띠는 젊은 여자가 숨이 차서 진찰실에 들어올때는 우선 류마치스성승모판협착증을 의심하며, 또한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 땀이 나며 불안한 표정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할 때도 우선 갑상선기능항진으로 인한 심장병을 의심하여 검사하여 보면 확진될때가 많다.

또한 입술이나 귀발이 파래져 있으며 손톱끝이 두꺼워지면서 청색증을 나타내고 있을때는 청색성선천성심장질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심장병의 진단을 확신한 나머지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때로는 오진할 때도 있으며 병의 정도를 확실히 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서 자세한 검사도 항상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심장병의 검사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사용하여 내려오던 의사의 상징이기도 한 청진기의 역할은 아직도 대단히 커서 청진기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을 때도 있겠다. 청진기의 사용이외 X-선의 촬영, 심전도, 심음도, 초음파, 기타 여러가지 최신에 발견된 심장검사법이 있겠으나 이들 방법의 사용은 각 환자에 따라 또는 각 심장병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함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심장병검사를 받을 것인가?

첫째, 어떠한 형태로든지 호흡곤란이 있을 때 즉 처음에는 별로 호흡곤란을 느껴보지 않던 분이 점차적으로 약간의 운동이나 정신적 긴장에 의해서도 숨이 찬 것을 느낄 때는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겠다. 심장병의 진행에 따른 심장기능의 저하로서 필요한 운동에 적응되는 심장기능이 그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호흡곤란이 옴으로 이 호흡곤란도 초기에는 심한 운동후에만 느끼던

것이 차츰 병이 진행되면 가벼운 운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때가 있다.

둘째로 중요한 증상으로는 흉부 동통, 즉 앞가슴이 아플때도 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우기 앞가슴이 아프면서 좌측 어깨나 팔로 뻗쳐나가는 통증이 있을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하겠다.

세째로 현기증이나 일시적인 실신을 자주 느꼈을 때 심장병이외 뇌질환이나 또는 어떤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 후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네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골이 아플때는 일단 혈압측정을 하여 혈압이 높을때는 고혈압성심장병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다섯째로 각혈을 할 때, 물론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혈하면 폐결핵을 의심하였지만 폐동맥압이 높아지는 신장병, 예를들면 승모판 협착증시 각혈할 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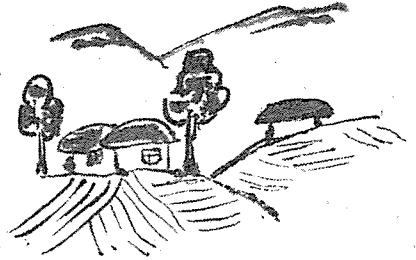
이상의 자각증상 외에 심장병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전신피로감, 빈뇨, 야뇨, 목이 쉬다, 부종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증상이 곧 심장병이 있다고 속단하지 말고 여러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거나 의심이 있을때는 전문의에게 일단 상의하여 검사함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각증상 외에 혈압이 높다든가, 맥박이 불규칙하다든가, 목근처 정맥이 확장되어 있다든가, 양쪽 볼에 홍조, 청색증, 손톱끝이 두꺼워지면서 파랗게 착색될 때 등등의 다각적증상이 나타날 때도 일단 심장병을 의심하여 자세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심장병의 증상을 각 심장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심장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차이가 대단히 많으므로 어느 한 두 가지의 증상이 곧 심장병이 있다고 확신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전문의에게 자문을 얻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되겠다. 심장병이 있다고 모두 완전한 검사,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벼운 심장병은 하등의 치료없이도 자기생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심장병에 따른 검사방법이나 검사종류도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검사를 확일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쓸데없는 검사방법까지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더우기 최근에 기계문명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심장검사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신특수시설을 완비한 병원이 많이 있어 심장병검사를 거의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나 때로 이를 이용하여 과잉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



하므로 선택적으로, 효과적으로 검사를 받음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심장병 중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심장질환과 고혈압성심장질환의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 질환은 40대 이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인병중의 하나로서 이들에 대한 병의 발견 이전에, 위험인자인 흡연, 지방질과식, 당뇨병, 고혈압, 비만증등의 유무를 파악하여 이들의 조절 내지 치료가 질병의 예방 특히 생명에 위협적인 성인병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필자=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장·의박〉